



무주 안성면 덕유산장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30일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장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가 주최·JTV 전주방송이 주관하며 전북도와 무주군이 공동 후원한 이날 행사는 장터와 인근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상인 간의 화합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오후 2시부터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태만 전북상인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와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군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덕유산인회 박철현 회장은 “안성덕유산장터가 더욱 사랑받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인들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덕유산 장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 중으로, 100년 역사의 덕유산 장터의 가치와 명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천동농협, ‘농심전심’ 마음으로 농촌일손돕기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지난 29일 실천면에서 무주군지부 김법석 지부장, 구천동농협 임직원, 농가주부모임 등 총 27명이 협력해 ‘들개수확, 영농폐기물 수거’를 진행했다. 구천동농협은 조합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김성곤 조합장은 “구천동농협의 조합원 여러분들의 복지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동반자로서의 따뜻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소방서·완산소방서, 소방공사 감리현장 교차점검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지난 29일 완산소방서와 함께 임실변전소를 방문해 소방공사 감리현장 교차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소방시설의 품질 확보,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양 소방서 점검반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준수 여부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현장배치 확인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사진전… ‘이름다운 자연의 기록’

‘운곡람사르습지 제1회 사진공모전’ 개최 … 도청 로비에 수상작 47점 전시 ‘눈길’

가을의 끝자락, 전북특별자치도청 로비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고창군생태관광주인 사회적협동조합(고창군에코매니저 대표 조재천)이 주최한 ‘운곡람사르습지 제1회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고창의 자연이 사진 속에서 다시 숨을 쉰다.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기록하여 마음에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사진가들이 렌즈에 담은 습지의 순간들이 모였다. 그중 47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돼,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사진 속 운곡람사르습지는 바람과 햇살, 새들의 날갯짓이 어우러진 생명의 무대다. 한 장의 사진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습지의 숨결이 느껴진다. 초록빛 람사르 습지의 물안개 피어오르는 새벽의 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습지 풍경 앞에서 많은 관람객이 한동안 발걸음을 멈춘다. 운곡람사르습지는 축구장 250개 면적, 약 55만 평의 드넓은 습지로, 850여 종의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명의 터전이다. 고창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륙 습지와 연안 습지가 함께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생태 보고로 꼽힌다. 특히 운곡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한 용계마을은 우리



나라 제1호 생태 관광 마을로, 지역 주민들이 생태관광과 환경보전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방문객에게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자원을 보존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다. 조재천 대표는 “작은 마을의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자연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이번 제1회 고창운곡람사르습지 사진전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진전은 단순한 예술 행사를 넘어, 자연이 인간에게 건네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만호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JB문화공간, 일본 시즈오카서 ‘차문화 탐방’ 성료

전북은행 후원… 차를 통한 한·일 문화 교류

전북은행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최대 녹차 생산지인 시즈오카에서 ‘차문화 탐방’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으로 마련된 맞춤형 문화교류 프로젝트로, JB문화공간의 대표 강좌인 ‘티소믈리에 과정’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차문화를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며, 차를 매개로 한 문화적 교감과 예술적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탐방단은 에도시대 전통차실에서 일본 다도의 형식미와 정신을 배우고, 세계 차 축제와 녹차 테마파크를 방문해 세계 각국의 차문화를 비교 체험했다. 또 시즈오카 홍차주식회사에서 티 클래스 수강, 무농약 차농원에서 화과자·말차·허브차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탐방의 하이라이트는 ‘한·일 차문화 교류행



사’였다. 티소믈리에 회원들은 JB문화공간 굿즈로 제작된 다구(茶具)를 활용해 현지 재일교포와 일본 주민 20여 명에게 직접 차를 대접하며 우정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JB문화공간 관계자는 “이번 시즈오카 탐방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차를 매개로 한 문화 교류와 미학적 성장을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 문화향유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순창 적성면 전통사찰 일광사, 효도 밥상 공양행사

순창 적성면 전통사찰 일광사, 효도 밥상 공양행사 전통사찰 일광사(주지 선동 스님)는 지난 29일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에 거주하는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효도 밥상 공양 행사’를 열었다. 선동 스님은 “수년 전 일광사 주지로 부임한 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지속해오고자 결심했다”며 “이번 행사는 비록 소박하지만, 종교인으로서 제 삶을 되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꾸준히 수행에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선동 스님은 “지난 6월 말 누전으로 인해 안타깝게 화재 피해를 입었던 산신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지원 덕분에 이달 복원·증축을 마쳤다”며 “앞으로 사부대중이 수행하러 자유롭게 찾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광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다양한 군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불교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아영면, 흥부고유제·어르신 한마당 잔치

남원시 아영면(면장 이금연)은 지난 29일, 아영면 상삼마을 흥부묘 앞에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흥부고유제를 열고, 행복나눔센터에서 제2회 아영면 어르신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였다. 아영면 발전협의회(회장 이경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우애·나눔·보은·행운의 흥부정신을 계승하고 마을의 무사안녕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행사이다. 이금연 아영면장은 “어르신에 대한 효사상이 무너져가는 요즘 시대에 우리 아영면에서 나눔의 상징인 흥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르신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청하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가 30일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를 방문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안전바 설치 및 주변 쓰레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리가 불편해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던 저소득 노인세대 현관 입구에 안전바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으로 복지기동대원 10여 명이 동참해 추진됐다. 이병연 복지기동대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